

지난해 뇌사 기증자 515명 – 장기이식 1921건

생체이식 가능한 장기에 ‘폐’ 포함 입법예고

장기이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살아있는 자로부터 적출이 가능한 장기등에 폐가 추가되며, 신장 이식대기자 중 소아의 연령기준이 개선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부정안을 마련해 오는 4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 가능한 장기등에 ‘폐’가 추가된다. 뇌사환자는 폐 손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뇌사자가 기증한 폐 이식건수가 다른 장기의 이식건수에 비해 훨씬 적은 상황이다.

이를 고려해 중증 폐질환 환자에게 생명유지의 기회를 부여하고 폐 이식 대기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살아있는 자로부터 적출 가능한 장기등의 법위를 폐까지 확대했다. 현재 생체이식 가능 장기는 신장(1개), 간장, 끝수, 퀘장, 퀘도, 소장 등 6종이다.

또한 소아 신장 이식대기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소아의 연령기준 및 신장 이식대기자 선정기준이 조정된다. 소아의 연령기준을 해외사례와 같이 11세 이하에서 ‘19세 미만’으로 변경한다. 참고로 미국, 영국, 프랑스는 18세, 스페인은 15세이다.

신장 기증자가 소아이면 전국의 소아 신장 이식대기자에게 우선 이식하고 소아의 신장 이식을 신·퀘장 동시에 이식보다 우선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개별 장기 이식대상자 선정 후 다장기 우선원칙 적용을 배제한다. 기존에는 개별 장기 이식대상자 선정 후 다른 장기 이식대상자를 다시 선정할 때 다장기 우선원칙이 적용돼 기 선정 이식대상자가 탈락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이식대상자 선정 결과의 신뢰성 유지를 위해 다른 장기 이식대상자 변동과 관계없이 이식대상자를 번복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꼭꼭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

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의 입법·행정예고 전자 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17년 한 해 동안 515명의 뇌사기증자를 통해 1921건의 이식이 이뤄졌다. 장기별로는 신장이 90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간장 450건, 안구 242건, 심장 184건, 폐 93건, 퀘장 62건, 퀘도 1건 등으로 나타났다.

장기이식대기자는 3만4187명으로 확인됐다. 장기별 대기자는 신장이 2만283명으로 가장 많았다. 간장 5411명, 퀘장 1210명, 심장 577명, 폐 168명, 퀘도 33명, 소장 19명 등이었다.

또한 19세 미만 소아 뇌사기증자는 31명으로 전체의 6%로 나타났다. 19세 미만 소아 이식대기자는 92명이었다. 이들의 평균대기개월수는 29.6개월이었다. 이는 미국 4.5~6.1개월 등 해외에 비해 소아의 대기기간이 과도하게 장기인 상황이다.

주제진 기자 hjoo@koreanurse.or.kr

만성콩팥병 환자에게 ‘건강한 비만’도 위험

질병관리본부는 만성콩팥병 환자 중 고혈압, 당뇨 등 대사 이상이 없는 ‘건강한 비만’ 환자도 대사 이상이 없는 비만하지 않은 환자에 비해 콩팥기능 악화 위험이 2배 높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에는 서울대병원 등 9개 병원이 참여해 만성콩팥병 성인 환자 1940명을 대상으로 비만 및 대사 이상 등반 여부에 따른 콩팥기능 악화 위험을 추적 분석했다. 그 결과 대사 이상이 없는 건강한 비만 환자군에서도 콩팥기능 악화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연구결과는 건강한 비만 환자군의 예후 논란을 설명할 수 있는 점을 인정받아 신장분야 국

특성에 맞는 임상진료지침을 갖추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연구결과가 만성콩팥병 환자 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만성콩팥병 환자를 포함한 전 국민이 건강한 신체를 위해 지속적인 운동과 식이조절 등을 실천해 비만은 감소시키고 균육은 증가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만성콩팥병 예방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및 교육자료 등을 보급하고 있다.

특히 올해 2월 대한소아신장학회와 공동으로 보건교사용 길라잡이와 상황별 교육자료(8종)를 만들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배포했다. 해당 자료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cdc.go.kr)→민원/정보공개→정보공개→교육자료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주제진 기자 hjoo@koreanurse.or.kr

만성콩팥병 환자군에서도 콩팥기능 악화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연구결과는 건강한 비만 환자군의 예후 논란을 설명할 수 있는 점을 인정받아 신장분야 국

제5차 한·중·일 간호학술대회 참가 안내

학술대회 개요

논문초록 모집 안내

연수프로그램 안내

| | |
|------|--|
| 대회명 | 제5차 한·중·일 간호학술대회 |
| 일정 | 2018년 9월 16일(일) ~ 9월 18일(화) * 9월 16일 : 단체등록 * 9월 17일(전일) ~ 18일(오전) : 학술대회 * 9월 18일(오후) : 기관방문 |
| 장소 | 일본 도쿄, United Nations University |
| 주제 | Creating New Values in Nursing (간호에서의 새로운 가치 탐구) |
| 통역 |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
| 등록비 | 400,000원 (USD 350) |
| 신청마감 | 5월 31일(목) 18:00 * 등록신청서는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작성한 후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바랍니다. |
| 문의처 | 대한간호협회 국제협력국 T.02-2260-2548 korn@koreanurse.or.kr |

| | |
|---------|---|
| 논문초록 주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novation in direct care ▶ Health promotion ▶ Leadership and management ▶ New values in nursing education ▶ 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 advancing quality of nursing care ▶ Creating new values in other areas of nursing |
| 논문초록 조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문 초록 A4 1장 이내(양식 참조) ▶ 타 학술지 또는 타 학술행사에 게재되지 않은 논문이어야 함 ▶ 본 학술대회 주제에 맞는 내용이어야 함 ▶ 지정한 언어 및 양식에 맞게 기술되어야 함 ▶ 저자 1명 당 1~2편 초록 제출 가능함 ▶ IRB 필요한 논문인 경우, IRB 심사 완료되어야 함 |
| 신청마감 | 2018년 7월 2일(월) 18:00 |
| 심사기간 | 2018년 7월 3일(화) ~ 7월 17일(화) |
| 심사결과 | 2018년 7월 말경, 개별통지 |
| 사용언어 | 논문초록(영어), 구두발표(한국어·동시통역), 포스터(영어) * 구두발표 PPT 자료 제출기한 : 2018년 8월 14일(화) |
| 신청자격 | 2018년도 대한간호협회 등록 회원 |

* 논문초록(구두 및 포스터) 발표자 지원 : 선착순으로 선정 예정입니다.
대한간호협회에서는 논문초록 발표자(구두, 포스터)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발표자 지원 금액관련 내용은 6월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병원협회 임영진 회장 선출

솔선수범과 섬김의 리더십으로 직역 간 화합 도모



대한병원협회 제39대 회장에 임영진 경희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사진)이 4월 13일 선출됐다. 5월 1일 취임하며, 임기는 2년이다.

신임 임영진 회장(65세)은 연세대 이과대학을 졸업한 후, 1982년 경희대 의과대학을 졸업했다. 경희대에서 의학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대한병원협회 부회장, 상급종합병원협의회 회장, 보건복지부 일자리위원회 보건의료특위 전문 위원 등을 맡고 있다.

그동안 사립대학교 의료원협의회 회장, 아시아렉셀감나미아프학회 대회장, 대한신경증환자학회 회장, 대한신경증환자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했다.

임영진 회장은 “회장의 역할은 먼저 다가가고, 먼저 행동하고, 먼저 희생하는 것”이라면서 “단합된, 강력한, 준비된 그리고 친근한 협회가 돼 병원협회와 의료계가 당면한 절실하고 실제적인 과제가 무엇인지 헤아리고 사안들을 해결해가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의료정책의 선제적 제안

과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 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번 병원협회 회장 선거는 4월 13일 열린 제59차 정기총회에서 실시됐다. 대학병원계(의과대학의 교육협력병원 포함)와 기타 병원계 간 교차출마 원칙에 따라 이번 선거에는 대학병원계에서 출마했다. 후보로 임영진 경희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과 민승기 차의과 학대 강남차병원 병원장이 나서 경합을 벌였다.

지역별 및 직능별 대표 39명으로 구성된 임원선출위원회의 투표 결과 임영진 후보가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아 선출됐다.

최수정 기자 sjchoi@koreanurse.or.kr

시신 기증 프로그램 활성화 기여

유분자 소망소사이어티 이사장 ‘감사패’ 받아



유분자 소망소사이어티 이사장(사진 오른쪽에 서 있는 이)이 캘리포니아대 어버인(UCI)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사진 = 미주중앙일보)

시상식은 UCI 의과대학이 3월 17일 개최한 시신 기증자들을 위한 추모행사에서 진행됐다. 이날 추모행사에서는 UCI 의대 2021년 졸업예정자들이 시신 기증자 가족과 기증 약정자 등 900여명을 초청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히워드 길먼 UCI 총장은 감사편지를 통해 “소망소사이어티와 2008년 시신 기증 프로그램 파트너십을 맺은 이후 한인 기증자 비율이 크게 늘었다”면서 “한인 커뮤니티에 시신 기증의 필요성을 알리고 인식을 높이는 데 힘써준 유분자 이사장과 소망소사이어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유분자 이사장은 소망소사이어티를 통해 노년의 삶을 잘 살고, 이를 돕게 잘 죽자는 것을 목표로 죽음 준비 캠페인을 펼쳐오고 있다. 자신의 시신을 UCI 의대에 기증키로 약정했다.

정규숙 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간호사만의 특권, RNcard!!

간호사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한장에 담았습니다.

- 첫 결제 후 10,000원 상당의 연회비 지원!
- RNshop에서 첫 결제시 5,000포인트 지급!
- 협회 관련 결제 시 20,000원 캐시백!



대한간호협회 회원복지사이트 Nurselife 네스라이프 www.nurselife.or.kr ☎ 1566-3137

| 간호사신문 | 발행인·편집인 김 옥 수 인쇄인 김 갑 기 |
|--|--|
| 1976년 12월 31일 창간 / 등록번호 : 서울다06368 | |
| ◇대한간호협회 (02) 2260-2511 서울시 종로 동호로 314 koreanurse.or.kr | ◇간호사신문 (02) 2260-2571 FAX (02) 2260-2579 독자주소변경 (02) 2260-2571 nursesnews.co.kr |

1. 연수프로그램 (3박 4일 / 9.16~19)

| 소요 경비 | 1,190,000원 |
|-----------|---|
| 비용 기준 | 45명 |
| 9월 16일(일) | OZ 102 09:00 ~ 11:20 (인천-나리타) 학술대회 등록 / 오다이바 |
| 9월 17일(월) | 학술대회 참석 |
| 9월 18일(화) | 학술대회 참석 / 기관방문 메이지 신궁, 하라주쿠, 오모테산도 |
| 9월 19일(수) | 아사쿠사, 나카시마, 홋카, 기타, 스카이트리 전망대 OZ 105 |